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풍은성교회 담임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말 성경)

제임스 어거스틴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나의 큰 딸 안나가 태어난 지 1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와 내 아내는 여를 청소년 집회 장소에 있었다. 나의 아내는 집회를

것들이 보이는데 집마다 모양이 다르고 뜰에 심어 놓은 꽃들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동네가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동네 사람들은 걷기 위해 나왔고 그 사람들과 마주치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면서 다니니 꽤 살만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말마다 한인 슈퍼마켓을 정하여 걷기도 하고 운전도 하면서 몇 달 동안 슈퍼마켓 구경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하였던 마켓을 가니 정말 좋았습니다. 마켓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보여 자세히 보기도 하고 사서 맛

멈춤의 아름다움!

마친 후 안나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안나는 계속해서 가는 길을 멈추었고 인도 위에 놓는 것이었다.

아내는 안나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시멘트 인도 위에 누웠다.

그래서 아내는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안나와 함께 길에 누워 위를 보게 되었다.

그때 내 아내는 그녀가 평생 볼 수 없었던 여름 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대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바쁘게 살아가기에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다.

가끔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살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색다른 아름다운 것이나 사람과 애정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의 글을 읽으면서 뉴욕에서 이사를 하고 동네를 잘 몰라 가는 길로만 차를 운전하여 다녔었습니다. 동네에 대해 잘 모르니 정이 들지 않고 썰렁하고 삭막해 보이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운동 삼아 동네를 집사람과 함께 걸어서 돌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변을 걸어서 다녀 보니 못 보던

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재료를 사다가 집 사람이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동네가 정이 들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비로소 동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만한 좋은 곳으로 이사 오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인생에 새롭게 주어지는 삶과 멈추는 시간은 원료가 찍힌 순간이고 그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멈추어 있다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일을 생각하며 자세히 주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의 시간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제 떠나 보내고 가을을 맛을 준비를 하면서 후회가 아니고 전진을 위한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N. T. 라이트 로마서 주석 메시아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N. T. 라이트, 로마서가 그리는 광대한 풍경을 세세하게 안내하다!
“바울이 살아간 역사적 맥락을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한,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이다.”
“N. T. 라이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N. T. 라이트의 유일한 정통 로마서 주석이다. 오랜 기간 치열한 연구를 통해 도달한, 저자의 신약 이해, 바울과 서신서들 이해, 그리고 로마서 이해가 구체적인 본문 해석에서 빛을 발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의 해설로 본문의 의미를 전체 맥락 속에서 짚어 내는 이 주석은, 로마서가 그리는 복음이라는 광대한 풍경,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맞고보자는 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출판사 리뷰]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메시아예수의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N. T. 라이트가 제시하는 깊이 있고 섬세한 로마서 해설

본서는 NIB(the New Interpreter's Bible) 주석 시리즈에서 N. T. 라이트가 집필에 참여한 로마서 주석 부분을 별도로 한 권의 책으로 뽑아낸 것이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N. T. 라이트가 치밀하게 추적해 내는 바울 신학의 진수를 이 로마서 주석에서는 더 깊이 맛볼 수 있다. 오랜 연구를 토대로 한 깊이 있는 학문적 통찰을 담고 있는 이 주석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 참고하면 좋을 정도의 적절한 분량으로 본문을 주해하면서, 전체 흐름과 의미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고 활용하도록 저술되었다. 또한 성경 본문 주해의 각 단위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해당 본문의 현대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단상’에서는, 어떻게 각 본문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지에 관한 저자의 여러 선지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바울이 제시하는 메시아예수의 복음, 그 진수를 만나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메시아예수의 복음으로 제시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토라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정의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백성을 탄생시키는지 보여 준다.



김기석 저/복있는사람 펴냄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을 맞이해 한낮에는 아직도 알알이 맺혀 떨어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지만 어둠이 내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마음은 벌써 단풍 드는 가을로 먼저가 있다. 유난히 힘들었던 이번 여름을 보내며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물난리를 겪고 아직도 복구에 힘들어하고 있을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무엇인가 제법 이루어 놓은 듯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세상사가 부질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음을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수십번 되뇌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어디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움이 될 만한 책 한권을 소개한다.
“지혜의 언어들”은 예전에 한번 소개 했던 책인 “고백의 언어들”의 저자인 김기석 목사의 책이다. 평소 공약과 같은 현실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듯하게 보듬는 목회를 해오신 분이 다. 교회에서는 다정하고 유쾌한 목사로, 밖에서는 지친 이들에게

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얼핏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지식의 많음은 사람의 목을 뿔뿔하게 만들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삶을 유연하게 만드는 차이가 있다. 전도서의 헛됨의 고백은 염세주의적 탄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삶에 궁극적인 만족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오는 자유의 메시지 즉 해방의 메시지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각각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더 유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경쟁에 내몰린 우리의 시간이지만 단숨에 소비되는 소모품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내야 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러한 경쟁의 유혹에 빠져 정작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장과 확장이 최고의 가치로 통용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교회에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배회하는 현실은 철저히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다. 헛된 경쟁에 눈과

지혜의 언어들 (전도서가 말하는 잘 산다는 것)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다하였다.

이 책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현대인의 허무와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목사의 책이다. 전도서 1-12장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잘 산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묻고 답한다. 지혜, 시간, 관계, 실천 등을 포함한 스물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맥락에서 전도서가 선포한 역설과 지혜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다.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 많은 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의 여백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직박이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전도서를 읽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의 실상을 성찰해야 한다. 전도서는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극한의

마음을 빼앗겨 주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양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병모

한국실로알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총장 신혜란 목사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한,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